

적상산성 정비 국비 확보 총력

황인홍 무주군수, 최응천 문화재청장 만나 내년 12억원 지원 요청

무주군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 16일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무주 적상산성(사적)은 조선 후기부터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한 적상산 사고를 수호하던 산성으로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3년 국비 12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6일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무주군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군은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면 서문지(128㎡)와 성벽 등 사적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 적상산성 성벽보수 설계를 토대로 추진될 성벽보수정비, 내년 하반기 즈음에 적상산성 원형고증 연구를 위한 학술대회 추진 등 사업의 고삐를 당긴다.

황 군수는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무주 적상산성은 조선시대 실록을 보관했던 역사의 의의가 매우 깊다"며 "적상산성 종합정비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를 추진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수립된 무주 적상산성종합정비 계획을 통해 연차별로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적상산성 종합정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무주 적상산성 정밀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문의 위치와 형태, 축조방법,

운영시기 성격 등을 파악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조사결과 서문지의 경우 현재 잔존하고 있는 석축 하단의 새로운 토층 안에서 고식 기와가 확인되면서 선대 유구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있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특히 적상산성의 정문으로 알려진 북문에서는 육축부(성문의 석축기단 부분) 상단에 기와편들과 주초석(기둥을 올리는 받침돌)이 남아 있으며, 출입부에서는 문화석(문을 끼워 넣는 구멍이 있는 돌-문지도라석)과 장대석(길고 큰 돌) 등 시설이 확인됐다.

무주 적상산성은 무주군에 유일한 사적으로, 1965년에 사적 제146호로 지정됐으며 지난 2020년 전북대학교를

통해 무주적상산성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2035년까지 학술조사, 탐방로 정비, 유적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정비를 추진해 관광객들에게 적상산성 탐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올해까지 적상산성 복원지 발굴조사(227㎡)와 적상산성 탐방로 정비(수목제거) 설계, 적상산성 성벽보수 설계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사업비 380억 원을 들여 시굴조사를 토대로 역사 자원을 살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귀농귀촌 '인구유입' 집중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와 간담회 열어

무주군이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 16일 농민들의 집 소회의실에서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도 이 같은 취지에서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김진섭 회장과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한 역할과 정책 등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섭 회장은 "귀농·귀촌의 생생한 경험을 살려 도시민 유치와 안정적인 생활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심각한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서 무주군과 협의회가 협력하면서 소임을 다한다면 무주를 지킬 수 있다"며 귀농·귀촌에 대한 의지를 함께했다.

군은 연간 8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귀농귀촌 유지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 지원, △귀농귀촌 집들이비용 지원, △

무주군, 예비 영농창업인 농촌일자리 연계사업 진행

무주군이 부족한 농가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 로컬JOB센터가 전북대학교 영농창업 특성화사업단(단장 황인호 교수)과 예비 영농창업인 농촌일자리 연계사업을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주군 청년지원정책을 비롯한 영농창업 지원정책, 귀농·귀촌정책 등을 안내받았다.

무주군로컬JOB센터 김선태 센터장은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과 대학생 예비 영농창업인들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예비 영농창업인 농촌일자리 연계사업은 단순히 일손만 거드는 활동이 아니라 영농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농가와 함께 농촌과 농업을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발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로컬JOB센터 김선태 센터장은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과 대학생 예비 영농창업인들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예비 영농창업인 농촌일자리 연계사업은 단순히 일손만 거드는 활동이 아니라 영농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농가와 함께 농촌과 농업을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발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을지연습 사전준비 점검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3분기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김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각 위원들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을지연습 준비상황 및 군작전상황 보고를 비롯해 성공적인 을지연습 추진을 위해 상호 지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훈식 군수, 정재순 육군 제7733부대 2대대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군·경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을지연습은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전시상황 대비와 국가 비상·재난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국 규모 종합훈련이다.

회의는 오는 22일부터 3박 4일 동안 실시되는 을지연습 준비상황에 대한

검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각 위원들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을지연습 준비상황 및 군작전상황 보고를 비롯해 성공적인 을지연습 추진을 위해 상호 지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진안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은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과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접수 대상은 상반기 추진 후 잔여 물량인 슬레이트 주택 철거 264동, 비주택(창고, 축사) 철거 1동이다.

신청된 대상자에게는 주택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 철거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가 지원된다. 그러나 지원 금액 초과 시 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건물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벼 주요 병해충 확산 대비 항공방제 추진

장수군은 최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상 영향으로 인한 벼 주요 병해충 발생 확산 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정기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총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투입한 이번 항공방제는 사전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면적은 3,930ha다.

군은 벼 이삭도열병, 깨씨무늬병, 잎집무늬마름병, 딸구류 등 출수기 전·후 발생률이 높은 주요 병해충을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추진해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와 잦은 강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 관리 등 철저한 사전대비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진안군, 사회적경제 비전·중장기 추진전략·세부사업 제시 위한 연구용역 실시

진안군은 17일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열) 및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및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5개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적경제현황 분석에 대해 설명한 뒤, 진안군민의 강점을 살린 사회적경제의 단계별 실행계획 및 기대효과를 제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군은 작년 3월에 제정한 「진안군 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 의거해 올해 3월 29일에 진행된 착수보고회의 건의사항과 사회적경제 관계자 워크숍(4월) 및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5월~7월)를 반영하여 진안에 맞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기반 세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의 발표를 맡은 오병현 가치솔루션 팀장은 진안군의 사

정하고 중점과제를 3대 계획(△사회적경제 기반역량 구축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생태계기반조성) 9대 전략 22개 세부사업을 수립한 후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에게 의견수렴을 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김창열 위원장은 "이번 중간보고회에 나온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진안형 사회적경제육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립하고 정부정책에 발맞춤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에서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략 수립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